

역경을 기회 삼아 새로운 도약 ... “축하합니다”

지식정보화 사회 선도·진리의 길 여는 언론

■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

현대불교신문 창간 1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변함없이 '불법홍포'와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위해 정진해온 모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한국불교는 지식정보화라 불리는 현대사회에서 모든 이들에게 주춧돌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내 마음과 하나로 존재하



고 움직인다는 진리를 체득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길잡이가 되는 현대 불교신문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불법을 수호하고, 진리의 길로 대중을 이끄는 신문으로 거듭 발전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사대부중 아픈 곳과 가려운 곳의 '약손'

■ 운산 태고종 총무원장

현대불교는 그동안 사시(社是)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의 정론을 통한 불교언론 창달에 기여해 왔습니다. 교계와 사부대중의 아픈 곳과 가려운 곳을 어루만지며 불교의 생활화에 앞장섰고, 수행과 교화의 생생한 현장 보도를 통해 불교의 현대화에 이바지하는 물론 지구촌 포교 현장에도 눈길



을 돌려 불교의 세계화에도 함께 해 왔습니다. 현대불교의 오늘이 있기까지 헌신하고 우리 불교 발전에 기여한 현대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며, 현대불교의 희망찬 앞날에 부처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창간의 '초발심' 되새기며 정진할

■ 정산 천태종 총무원장

현대불교는 불교의 수행, 신행, 문화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부처님의 교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독자들에게 전달하는데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문에 매주 연재되는 큰 스님들의 법문은 독자들에게 살아가면서 위기를 맞을 때마다 큰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존폐의 위기에서도 꿋꿋히 직원들이 합심해 어려움을 잘 헤쳐 나가 여법하게 신문을 발행하는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와 고마움을 표합니다. 창간 13주년을 계기로 다시 한번 재발심해 정진을 준비하던 처음의 그 마음으로 돌아가 계속 분투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대부중의 눈과 귀 역할로 등불되길

■ 회정 진각종 총무원장

현대불교신문사의 지난 13년은 부처님의 삶처럼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한 고행의 연속이었으며, 그 결과 이제는 미래지향적 한국불교의 저변을 성장시키는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아시다시피 현재 한국불교에 붙어있던 고난의 바람처럼 우리가 넘어야 할 고비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



다. 따라서 사부대중의 올바른 눈과 귀가 되는 불교언론의 역할은 어느때보다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대불교신문은 이러한 불교언론의 시대적 소명을 깊이 이해하고 바르게 실천해가는 이 세상의 법등이 되어 주길 바랍니다.

법안으로 세상 바라보는 '자비 언론' 되길

■ 흥파 관음종 총무원장

현대불교신문이 어느덧 올해로 13번째의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우선 역경을 딛고 교계 언론의 정상에 우뚝 서 있음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교계의 공정한 언론 더 나아가 부처님의 법안으로 바라보는 자비의 언론이 되어 불자들에게 국민들에게 박수 받는 언론이 될 줄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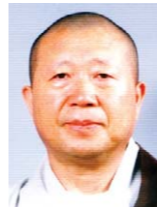


해 하지않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은 창간 13년 전으로 돌아가 "어떠한 심정으로 펜을 들었는지?"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알리고 싶었는지?"에 대한 깊은 반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모든 불자들에게 사랑받는 신문이 되길 바랍니다.

청소년 바르게 이끄는 내용 많이 담아야

■ 도후 파라마이타청소년협회 회장

그간 '현대불교'를 예측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이 바르게 전달되는 내용이 풍부한 신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운 시기도 겪었지만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분발해 불교정론 지로서의 사명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신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많은 기획과 노력을 했



으면 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을 바르게 이끌고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실어주길 바랍니다. 포교와 교계 언론의 지표 역할을 맡은 그간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창간 1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상의 빠른 변화 대응하는 '길' 제시

■ 일면 조계종 군종교구장

우선, 지난해 '군포교합시다' 캠페인을 통해 우리 군종교구가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현대불교신문의 창립 13주년이 더욱 감회가 새롭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현대불교신문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세상은 참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도 그 변화의 한 가운데 놓여있습니다.



변화에 인식하고 대응한다는 것은 발전과 성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 불교문화의 바른 성장을 위해 현대불교와 같은 양질의 언론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불교가 불자의 권익옹호와 포교의 길을 넓히는 언론으로 더욱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정론직필' 사명감으로 '참된 불교' 지향해야

■ 수경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현대불교신문은 품격 높은 불교문화 창달과 건전한 여론 형성에 이바지하며 불교 언론사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13년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그리고 바르게 전파하여 불자들의 올바른 불교신행을 위한 정론지 역할을 다한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우리는 정치와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교도 참된 불교를 지향하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건전하고 밝은 사회 이룩하기 위해 더욱 정론직필에 힘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불법홍포의 선두와 후미에 있는 '법우'

■ 정덕 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장

창간 13주년을 맞이한 현대불교신문에 뜨거운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 동안 현대불교는 한국불교 집콕의 현대사와 함께 하면서 내부적인 역량과 외부적인 영향력을 겸비한 교계 대표적 언론사로 당당히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폐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임직원들의 희생과 노력은 앞



으로 현대불교가 가져갈 많은 영광의 밑거름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불법홍포의 가장 선두에서 그리고 후미에서 늘 마추치게 되는 법우가 될 것을 기대하며, 독자의 한사람으로써 다시금 축하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불자들 신행과 생활의 문화 신장에 일조

■ 김의정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를 위한 현대불교의 역할은 불법홍포와 정론직필에 앞장 서는 결과일 것입니다.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바르고 신속하게 전달해 온 현대불교신문이 불교의 발전은 물론 불자들의 신행을 도모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삶의 문화를 더욱 신장하는데 일조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언론이 지향하는 정론직필에 대한 소임도 더욱 충실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또 수행문화를 점검하고 아름다운 기사 내용을 통해서 언론과 개인, 단체들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랍니다.

희생·헌신·주인의식 지켜가는 열정 '감동적'

■ 김인숙 불교여성개발원장

언론포교의 대표신문 현대불교의 창간 1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언제나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소식을 발굴하여 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현대불교의 기자여러분과 임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폐간 위기를 맞았으나 치열한 지구력 발휘하여 정상과도진입이라는 쾌거를 이



룬 해이기에 창간 13주년을 맞는 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깊어 생각됩니다. 올해 한해 여러분이 보여준 희생과 헌신, 그리고 주인의식은 불교계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열정을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정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움 딛고 더 발전적인 모습 보여주기

■ 양성홍 조계종 포교사단 단장

지혜의 등불을 밝혀 불자들의 정진력을 향상시키고 희망과 용기를 준 현대불교신문 창간 1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더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현대불교신문은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를 기치로 수행과 포교의 새 장을 개척했습니다. '새싹 불자를 키우자' '2006 군포교합시다' 캠페인 등을 통해 포교취약계층에 대한 포



교를 선도했습니다. 또 '간화선 증흥을 위한 선원장 초청 대법회' '계율수행대법회' 등을 통해 수행의 향기도 더했습니다. 특히 '붓다뉴스'를 통해 불교계 뉴스를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어려움을 딛고 좀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믿습니다.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중단

대한불교조계종 삼화불교

창간 15주년을
"현대불교
축하합니다."

< 본 중단은 청정계율의 울종이며 대한불교조계종 선종과는 별개의 중단임 >

- ◆ 원로원장: 범종
- ◆ 부 종 정: 혜일
- ◆ 중앙위원장: 성민
- ◆ 감찰원장: 상산
- ◆ 감찰부장: 지오
- ◆ 감찰국장: 지호
- ◆ 총무원장: 혜인
- ◆ 총무부장: 동산
- ◆ 재무부장: 범경
- ◆ 교무부장: 월곡
- ◆ 사회부장: 자명
- ◆ 문화부장: 지우
- ◆ 비구니부장: 중비
- ◆ 원로원: 성민, 혜일, 혜정, 범종, 백공, 천광, 일봉, 해남, 봉산
- ◆ 종회의장: 정봉
- ◆ 중앙선원장: 도일
- ◆ 교육원장: 일봉
- ◆ 교육부장: 봉선
- ◆ 교육국장: 성덕
- ◆ 포교원장: 정오
- ◆ 포교부장: 정산
- ◆ 포교국장: 목현
- ◆ 회계원장: 대풍
- ◆ 회계부장: 대산
- ◆ 회계국장: 다정
- ◆ 기획실장: 정금옥(불이성)
- ◆ 총무과장: 조일
- ◆ 규정부장: 월성
- ◆ 규정국장: 영산

- ★ 지방교구 총무원장
- 서울남부교구 총무원장: 상산
- 서울서부교구 총무원장: 범선
- 인천교구 총무원장: 혜정
- 부산중부교구 총무원장: 정오
- 부산동부교구 총무원장: 봉선
- 경기남부교구 총무원장: 범정
- 대구교구 총무원장: 도오
- 울산교구 총무원장: 수덕
- 광주교구 총무원장: 광운
- 중국남경총무원장: 해산
- 강원교구 총무원장: 광덕
- 충남교구 총무원장: 무광
- 충북교구 총무원장: 혜정
- 경남교구 총무원장: 혜명
- 경북교구 총무원장: 해관
- 전남교구 총무원장: 대성
- 전북교구 총무원장: 정산
- 제주교구 총무원장: 덕산
- 일동동경총무원장: 정대
- 미국뉴욕총무원장: 성산
- 장원신도회장: 김 현제

- ★ 학교법인 삼화학원
- 삼화불교학림
- 학 장: 범종
- 교 수: 범종, 백공, 해운, 월곡, 봉선, 혜정, 정산, 박수구, 김수정, 김동균
- 조 교: 정금옥
- 운영이사: 무불, 성산, 원명, 본각, 해관, 도우, 일현, 정현, 범경, 단공, 해남, 덕운, 정호, 현덕, 도오, 일행, 도명, 무진, 만공, 무공, 가산, 도명, 성봉, 법해, 진법, 용산, 여연, 법신, 효경, 해동, 도원, 대각, 지각
- 삼화불교대학림
- 원 장: 혜인
- 교 수: 범종, 일봉, 정수, 송암 성민
- 조 교: 조일
- 운영이사: 광운, 도의, 영봉, 도홍, 성해, 성하, 목현, 지원, 혜법, 혜복, 성공, 수원, 범우, 혜현, 지운, 선공, 도각, 동덕, 무량, 혜월, 혜철, 정현, 철산, 덕산, 도성, 진경, 보덕, 진제, 연각, 성목, 덕승, 지해, 백운
-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 총 장: 오 맨화, 혜인
- 부 총 장: 윤경석
- 학생처장: 손영진
- 학생주임: 이화복
- 조 교: 손정, 주소리
- 겸임교수: 신병용, 김병호

총무원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 02-511-2026, 2027, 3445-7375~6
FAX : 02-511-2028

인터넷 주 소 : 삼화불교학림 : www.njutcm.co.kr

남경중의약대학 : www.njutcm.co.kr
E-MAIL주소: samhwade@hanmail.net